

평화선언

올해도 또 다시, 58 년전의 작열하는 지옥을 생각나게 하는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피폭자가 계속해서 호소해 온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세계는 멀어지고, 도처에 암운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이 버섯구름으로 변해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 같은 기미입니다.

한편으로는,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중심적인 국제합의인 핵불확산조약체제가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선제사용의 가능성을 명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지향하여 소형핵무기 연구를 재개하는 등, 「핵무기는 신」이라는 것을 신봉하는 미국의 핵정책이 최대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무기 뿐만은 아닙니다. 국제연합 헌장이나 일본국 헌법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언동이 세상을 뒤덮어, 시대는 정말로 전후에서 전전으로 크게 키를 꺾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영군 주도의 이라크전쟁이 분명하게 한 것처럼 「전쟁이 평화」라는 주장이 마치 진리라는 것처럼 횡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계속적인 국제연합 사찰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는 세계의 소리를 소홀히 시작하여 죄없는 수많은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고, 몇십억년도 씻을 수 없는 방사능 오염을 초래하였습니다. 개전의 구실이었던 대량파괴무기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찍이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암흑세계를 없애는 것은 암흑세계가 아닌 빛이다」라는 진실을 다시 응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힘의 지배」는 암흑, 「법의 지배」는 빛입니다. 「보복」이라는 암흑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시켜서는 안된다」라는 피폭자들의 결의에서 생긴 「화해」의 정신은 인류의 앞길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을 내세워, 고령화가 눈에 띄는 피폭자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히로시마를 방문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시 대통령, 북한의 김중서기를 비롯하여 핵무기 보유국 리더들이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핵전쟁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핵무기는 극악, 비도, 국제법위반 무기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실제 상태가 전세계에 보다 널리 알려지고, 전세계의 대학에 보다 많은 「히로시마·나가사키 강좌」가 개설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핵불확산조약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히로시마시는 세계 평화시장회의의 가맹도시 및 시장에게 핵무기 전폐를 위한 긴급행동을 제안합니다. 피폭 60 주년 2005 년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핵불확산조약 재검토회의에 전세계에서 많은 도시의 대표가 모이므로, 각국 정부 대표에게 핵무기 전폐를 목적으로 하는 「핵무기금지조약」체결을 위한 교보를 국제연합에서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전세계의 사람들, 특히 정치가, 종교자, 학자, 작가, 저널리스트, 교사, 예술가나 스포츠 선수 등, 영향력을 갖고 있는 리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조금이라도 전쟁이나 핵무기를 용인하는 말은 농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절대로 악한 핵무기를 사용시키지 않고 폐절시키기 위하여 항상 기원하고, 발언하고, 행동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유일한 피폭국」을 표방하는 일본정부는 국가 내외에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들지 못하게 하고, 갖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신·비핵 3 원칙을 새로운 국시로 내세운 후에, 아시아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성심성의껏 추진하고, 「검은 비강우지역(雨降雨地域)」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폭자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모든 피폭자에의 원호를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58 년째의 8 월 6 일, 어린이들의 시대까지는 핵무기를 전폐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결의로 노력할 것을 맹세하며, 모든 원폭희생자 영령 앞에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2003 년 8 월 6 일

히로시마 시장 아키바 타다토시
번역: 일본 컨벤션서비스 주식회사